

퇴직 간호사부터 캔 모아 성금 전달한 시민까지...

“당신들이 코로나19 극복의 영웅입니다”

박금환 전 소장 퇴직 2개월만에 의료현장 복귀
 “가족들의 만류에도 도움 요청 외면할 수 없어”
 코로나19 극복 특별성금 등 온정의 손길도 쇄도

만사를 제치고 코로나19 최전선에 달려간 퇴직 간호사에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겠다며 성금과 물품을 후원한 개인과 기업·단체들까지, 제주지역 사회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현장 복귀한 퇴직 간호사= “몸은 고되진 않아요. 빨리 이 사태가 끝나길 바랄 뿐이죠”. 박금환(61) 전 제주보건진료소 소장은 2개월여 간의 짧은 휴식을 뒤로 하고 다시 의료 현장에 복귀했다. 박 전 소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제주도인재개발원에 배치돼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도 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한 관광객 등 자가격리자를 임시 수용해 관리하는 곳으로, 박 전 소장은 이 곳에서 자가격리자에게 식사와 생활품을 제공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일을 맡았다.

박 전 소장은 지난 38년간 보건소 등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12월말 정년 퇴직했다. 그러나 휴식을

보내는 것도 잠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의료현장의 어려운 상황이 그를 붙잡았다.

박 전 소장은 “현장에 복귀해달라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면서 “38년간 의료인으로서 일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복귀 결정을 내렸을 땐 가족들의 만류가 심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그 곳에서 확진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왜 굳이 가려고 하느냐”며 극구 말렸지만, 박 전 소장은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외면할 수 없다”고 가족들을 설득했다. 그런 가족들은 이젠 든든한 응원군이 됐다.

박 전 소장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근무한다는 사실에 가족들이 안심한 것 같다”면서 “이제는 ‘잘 근무하고 오시라’ ‘어머니 최고’라며 응원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소장은 힘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대구에 있는 의료진들이 힘들지, 저울말 정년 퇴직했다. 그러나 휴식을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을 돌보고 있는 박금환 전 제주보건진료소 소장. 그는 정년 퇴직한 지 2개월만에 의료현장에 복귀했다. 사진=박금환 전 소장 제공



손소독제 등을 기탁한 제주도약사회. 사진=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격리된 분들이 하루 빨리 최종 음성을 판정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가장 큰 염원”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극복하자” 후원 물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한 각종 각종의 후원도 줄을 잇고 있다. 3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특별모금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1532만5002원의 성금이 모였다. 또 손소독제 등 1499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이 도착했다. 제주도약사회는 1500

만원 상당의 손소독제와 소독 티슈를 모금회에 전달했고, 제주표선 육각사 신도회는 심시일만 모은 성금 700만원을 기탁했다. 도내 모 기업은 손소독제 3000ℓ 기부를 약속했고, 이날 한 시민은 그동안 모은 재활용 캔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며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또 지난달에는 익명의 독지가가 마스크 1만5000장을,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은 양식 어가들이 양식장 관리용으로 보관해 왔던 마스크 1180장을 3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함덕리에 기부하는 등 온

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특별모금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 모금계좌는 농협(963-17-007087), 제주은행(03-01-108315)이며, 제주적십자의 성금 계좌는 농협(959-01-364642), 제주은행(01-01-290625)이다. 마스크 또는 소독제와 같은 현물 기부도 가능하다. 문의=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064-755-9810)·제주적십자사 총무팀(064-758-350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중 상해 국제수입박람회
 참가 희망 도내 중소기업 모집

제주자치도는 오는 13일까지 중국 상해 국제수입박람회(11월 5일~10일)에 참가할 도내업체를 모집한다.

도는 중소기업(식품, 농산물, 화장품 등) 6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kr.jejutrade.com>) 또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홈페이지의 공고란을 참고해 담당자 이메일(ysfvon@kita.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로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상해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중국상무부 및 상해시정부가 주최하는 중국 최대 박람회이다.

기타 문의는 도 통상물류과(064-710-2627),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064-757-2811)로 하면 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코로나19 극복 위해
 도, 국비 57억원 요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환자 수용력 확대를 위해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57억5111만원 규모의 국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도내 감염병관리기관 3개소의 병동을 비워 음압과 격리 또는 일반병실을 확보하는 소개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총 464병상(120실)을 확보하고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도가 파악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추가 필요인력은 의사 9명, 간호사 77명이다.

제주도는 또 군의관 6명(해병대 1명, 해군기지전대 5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현재 보건소에 179명의 간호인력을 연차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도는 우선 인력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정부에도 추가 요구할 방침이다. 오은지기자

약국서도 공적 마스크 판매
 정부가 특별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

3일 제주도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도내 약국 290여 곳에서 순차적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중이다.공급 물량은 약국당 하루 100장으로 총 2만9000개다. 1개당 1500원 내외로 1인당 최대 5장까지 구매 가능하다.

제주도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마다 배송되는 시간이 달라 판매시간은 약국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에서도 코로나19 즉시 확진 판정

앞서 두차례 양성 판정 영향
 일본의 이중 확인 절차 생략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병본)의 이중 확인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제7판에 의거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원 규명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최초 양성을 확인한 경우 일본을 통한 이중 확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앞서 두차례 양성 결과를 얻고도 일본의 이중 확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절차가 생

략돼 감염병 확진 여부를 신속히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발생한 세번째 확진자의 경우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즉시 확정 판정을 내린 첫 사례다.

첫 번째 확진자의 경우 한라병원의 최초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얻었지만 일본의 재검증을 거쳐야 해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이틀이나 걸렸다.

두 번째 확진자도 보건환경연구원

의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을 얻었지만 기관의 최초 검진이어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튿날 일본의 재검증을 통해서야 겨우 확진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세 번째 확진자는 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로 즉시 확진 판정을 얻었다. 양성 검사 경험을 2회 이상 얻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직접 검체를 들고 일본을 방문해야 해 다른 시도보다 하루 늦게 확인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과 조치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도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성/장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만 35세~60세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기업, 근로자, 제주도가 함께 적립하여, 근로자가 근속 및 계약유지 시 [2,040만원+이자]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재형저축에 가입하여 5년 장기재직 시 [2,040만원+이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근로자 적립금 총 600만원	5년간 매월 10만원 적립
중소기업	기업 부담금 총 720만원	5년간 매월 12만원 적립
제주도	도 지원금 총 720만원	5년간 매월 12만원 적립

5년 적립 시
 사업참여근로자에게
 2,040만원 + 이자 지급

접수기간 2020년 2월 24일(월) ~ 3월 20일(금) 까지

세제혜택 기업은 기업납입금 전액 경비인정과 25% 세액공제, 근로자는 만기공제금 수령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지원대상 제주도 내 중소기업, 참여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①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만 35세~60세 이하 ② 청년재직자 : 만 34세 이하

만 34세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근로자,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근로자가 근속 및 계약유지 시 [3천만원+이자]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업 : 1,200만원 적립 (월 20만원 x 60개월)
 - 근로자 : 720만원 적립 (월 12만원 x 60개월)
 - 정부 : 1,080만원 적립

제주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제주도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제주도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기업 : 가입촉진금 60만원 (공제 3개월 유지시)
 유지촉진금 90만원 (공제 30개월 유지시), 만기촉진금 150만원
 - 근로자 : 만기촉진금 120만원

접수기간 상시접수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54-5159 / 5161